

令和 3 年 度

前 期 日 程

韓 国 語 問 題

(注 意)

1. 問題冊子及び解答用紙は、試験開始の合図があるまで開いてはいけない。
2. 受験番号は、各解答用紙の受験番号欄に正確に記入すること。
3. 問題冊子のページ数は、表紙と白紙を除き6ページである。脱落している場合は直ちに申し出ること。
4. 解答用紙は表紙を含めて4枚である。
5. 解答は、解答用紙の指定されたところに記入すること。枠からはみ出してはいけない。
6. 問題冊子の余白は、適宜下書きに使用してよい。
7. 解答用紙は持ち帰ってはいけない。
8. 問題冊子は持ち帰ること。

I. 次の、1973年に법정이發表した「아파트와 도서관」という文章を読んで、後の問いに答えなさい。

한때 우리 나라에는 '섰다' 하던 교회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그 말도 이제는 빛이 [1]. 그 자리에는 바야흐로 호텔과 아파트가 우뚝우뚝 치솟고 있다.

호텔은 요즘 밀려드는 외국 관광객의 사대로 이른바 즐거운 비명을 [2] 있다니, 외화 ①획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국가 정책면에서 볼 때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 외화의 위력 앞에 몸과 마음을 아무렇게나 굴려 거래의 ②채권이나 공지를 내동댕이치는 일반 없다면.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a)장려되고 있는 건축 양식이 아파트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A)그런데 이 아파트가 본래의 건축 목적을 외면한 채 호화판으로 기울고 있으니 어떻게 된 노릇인가. 심지어 한 가구에 2천만 원짜리까지 있다니, 그것도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한다니 서민들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 (b)부족률은 40퍼센트 선을 웃돌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아파트 건축 관계자들임에도 호화판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B)호화판일수록 입주자가 쇠도하기 때문인가. 호화 아파트는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오손도손 살기 위해서가 아님은 물론이다. ③허영심을 부채질하고 일부 여유 자금의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 이래서 서민들은 혜택권 밖에서 [3] 맞는다. 가난한 서민의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돈 많은 부자들 차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위세가 설 자리를 가리지 않고 어디나 [4] 고개를 디딜려는 데에 우리는 ④저항을 느낀다. 서울대학교 본부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히 안타깝고 착잡한 심경이었다.

그 대학이 내개는 모교도 자교도 아니지만, 유서 깊은 대학의 터가 (c)학문의 전당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5] 그러한 아파트로 주지않는가 싶어서였다. 가뜩이나 대학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이고 보면 그 터는 평당 얼마짜리의 단순한 지면(地面)으로 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며 분위기까지도 대학의 역사와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최근에 나는 참으로 (d)흐뭇한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눈물겹도록 가혹하고 고마운 일이었다. 서울대 본부 캠퍼스에 국립도서관을 지어 캠퍼스를 학문의 전당으로서 보존하자는 운동이 그 대학 동창인 가정 주부들 사이에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c)17억 원을 들여 여의도에 지을 국립도서관을 서울대학 자리에 짓는다면 그 캠퍼스는 길이 학문의 전당으로 보존될 거라는 의견은 모든 시민들이 크게 공감할 바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을 국립도서관이라면 국민 누구나가 (e)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 캠퍼스는 ㉠최적지일 것이다. 여의도에는 국회도서관이 설 테니 한 군데 둘씩이나 세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도심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도시의 인구 분산 정책에도 ㉡역행되는 일이다.

(d)이제 시민들은 관계 당국의 지혜로운 배려가 있기를 다 같이 기대하자. 아파트나 도서관이냐는 민족의 슬기를 짚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우리들이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지혜로운 배려에 미소를 [6]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우리만이 아니라 후대의 자손들까지도 그 미소의 의미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한 거래의 처지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다.

【법정 (2003) 『무소유』, 범우사】

問 1. □ (a) ~ (e) の発音を例にならって発音どおりに書きなさい。
(例: 단어 → 다너)

問 2. _____ ①~⑥を漢字で表記しなさい。

問 3. [1] - [6]を埋めるのに最も適当な語句を次の語群の中からそれぞれ
選びなさい。

[1] 차가워졌다, 바래졌다, 뚜렷해졌다, 거칠어졌다

[2] 지르고, 부르고, 바르고, 기르고

[3] 야단을, 바람비를, 며느리를, 도둑을

[4] 아삭아삭, 길쭉길쭉, 불쭉불쭉, 바짝바짝

[5] 얼핏, 선뜻, 기껏, 사뭇

[6] 치울, 만들, 참을, 더금을

問 4. (A) ~ (D)を日本語に訳しなさい。

Ⅱ. 次の文章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①実家を離れてからの五年間、私は東京やその周辺の町で自分の新しい生活を開拓するのに必死だった。ようやく手にした自由を一寸たりとも無駄にはしなくなかった。すべてを自分で選べるのなら、楽しいこと、明るいことだけを選んで、いつも浮かれていたかった。この世界をむさぼり、丸ごと受けいれて、愛していようと思った。

でも、愛しても、愛しても、私自身はこの世界から愛されていないような、そんな気が心のどこかでいつもしていた。

受けいれても、受けいれても、私自身は受けいれられていない気がしていた。

それは父のせいなのか、自分自身のせいなのか、もしかしたらヤスの暗い血のせいなのか――。

とりとめない思いを巡らせながら、私はまるで何か大きなものに失恋でもしたような気分で、高速で彼方へ去っていく東京の街並みをいつまでも見つめていたのだった。

【森絵都(2008)『いつかパラソルの下で』, 角川書店】

②ハングルで朝鮮語以外の言語が書かれうるということを見ただけでもわかるように、文字というものを考えるにあたって、どうしても前提として確認しておくべきことがある。それは言語と文字は異なった存在だということである。換言すると、言語と文字は異なった平面にある。わかりきったことのように、実はこのことの持つ意味は重要である。ハングルは朝鮮語を書くために生まれたが、別に朝鮮語しか書けないわけではない。ハングルで日本語を書くこともできるし、英語を書くこともできる。

【野間秀樹(2010)『ハンゲルの誕生 音から文字を創る』, 平凡社】

③戦争とは何だろうか。相互の大量殺人、大量破壊の行為なのだが、国家が認知さえすれば合法となり、殺人も罰せられない。なぜなら、自衛のための戦争は、近代国家の固有の主権行為であり、それは国際法でも認められているからだという。ただし、「自衛のための」と条件をつけても、最初から「侵略のために」戦争をしたと認める国はないのだから、実際上はすべての戦争が合法化されてしまうことになる。

ここから近代国家そのものにたいして疑問が生まれてくる。「国家」のためなら対立する人間の人権をふみにじり、場合によっては殺してもよいという観念、「国家」は「個人」に優越するという考え方に疑問が湧いてくる。戦争というものを民衆一人ひとりの運命に引きつけて考えてみると、「死」んでも忠誠を尽くせと要求する、この「国家」というものへの疑いを回避す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

【色川大吉(1998)『近代日本の戦争』, 岩波書店】

Ⅲ. 次の文章を日本語に訳しなさい。

①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고 보니 많은 청소년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 중에는 제가 진행한 청소년 음악회에 찾아온 청소년들처럼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클래식을 전혀 듣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전자보다는 후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보다는 가요나 팝송, 힙합이 더 친근할 테니까요.

【금난새 (2021) 『금난새의 클래식 여행』, 아트북스】

② 야속스럽기는 아이들도 담임선생님과 마찬가지로였다. 서울에서는 새로운 전입생이 들어오면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되기 바쁘게 그를 빙 둘러싸고 이것저것 묻게 마련이었다. 공부를 잘하는가, 힘은 센가, 집은 잘사는가 따위로, 말하자면 나중 그 아이와 맺게 될 관계의 기초가 될 자료수집인 셈이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급우들은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문열(198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문학사상사 『李箱文學賞受賞作品集⑩』(1993)より】

③ 의료보험이 없었을 때는 종종 환자가 입원보증금을 내지 못해 병원에서 쫓겨나는 일이 흔히 일어났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가벼운 병을 치명적인 질병으로 키우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병원과 환자의 치료비 흥정에서 환자는 늘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무거운 병에 걸리면 가만히 앉아서 죽거나, 가족 전체의 경제적 파산을 각오하고 완치 가능성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시술을 받아야 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을 이런 고통과 비극에서 구해냈다. 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국가로 하여금 무엇인가 일을 하도록 비판하고 호소하고 자극한 선각자들의 노고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유시민 (2014) 『나의 한국 현대사 1959-2014, 55년의 기록』, 들베게】

IV. 次の慣用表現の意味を日本語で説明し、その慣用表現を用いた韓国語の文章を作りなさい。その際、慣用表現を用いることがふさわしい文脈がよくわかるようにすること。

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② 벼룩의 간 빼먹기